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회의록(2026년 4차)		담당	사무국장	실무위원장	대표위원장	
회의일시	2026. 5. 29.(금) 10:00~12:00	회의장소		안산시청 제3별관 대회의실		
분과명	기획분과	작성자		박민수		
참석자	총 분과원 16명 중 10명 참석(62.5%) ※ 전체분과원 참석여부 O,× / 협의체 사무국 참석률 제외					
	배은형	안산시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O	정혜영	안산시상록구노인복지관 과장	O
	안혜성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부장	O	진충호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O
	이귀란	안산시건강지원센터 국장	X	임남희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부장	X
	최미화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장	O	양은진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부장	X
	김슬기	안산시단원구노인복지관 부장	X	송미옥	안산시장애인복지관 국장	O
	김지선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부장	O	변지우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O
	박은수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X	조혜은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부장	O
	김세운	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X	이설화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O
	박민수	안산미래연구원	O	장윤실	안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O
	김지안	안산미래연구원	O	정현준	안산미래연구원	O
안건	1. 제5기 사업 평가 결과에 대한 분과 검토 2. 제6기 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논의 3. 제6기 신규사업 후보 검토 4. 종합 합의 사항 5. 향후 계획					
회의내용	*분과원 불참 사유 -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이귀란 : 업무중복(내부일정 중복) - 단원구노인복지관 김슬기 : 업무중복(워크숍) -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박은수 : 업무중복(내부일정 중복) - 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세운 : 업무중복(내부일정 중복) - 선부종합사회복지관 임남희 : 업무중복(워크숍) - 와동종합사회복지관 양은진 : 업무중복(워크숍)					
	1. 제5기 사업 평가 결과에 대한 분과 검토 □ I-1-1 문화를 통한 안산 정체성 찾기 프로그램					
	구분	주요 내용				
	TF 검토 결과	· 안산의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하여 시민의 지역 이해도와 애착 형성에 기여한 사업으로, 지역 정체성 형성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은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안산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기존 사업은 김홍도, 성호 이익, 최용신 등 역사 인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업도시, 다문화, 청년문화, 생태·해양, 생활문화 등 현재 안산의 다양한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제기됨.				

구분	주요 내용
분과 보완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분과에서는 본 사업이 제5기 계획 내에서 유일하게 문화적 성격을 갖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제6기에서도 유지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함. · 다만 현재와 같이 역사 인물 중심의 교육·공연·전시 또는 이미지 상품화 방식에 머무르기보다, 안산의 도시 이미지 개선과 문화 브랜딩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현장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에서는 젊은 세대에게 각인될 수 있는 콘텐츠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김천의 김밥축제 사례처럼 지역명과 대중적 인식이 연결되는 화제성 있는 콘텐츠를 참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또한 안산의 자원은 역사 인물뿐 아니라 다문화, 원곡동, 대부도, 바다, 환경, 안전 등으로 넓게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컨셉화하여 내부 시민의 자긍심과 외부 도시 이미지 개선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현장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의 지향점이 시민 내부의 정주의식·자부심 형성인지, 외부 도시 브랜딩인지가 다소 모호하다는 점이 논의됨. · 다만 내부 정체성과 외부 이미지는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기 때문에, 안산시가 어떤 문화적 방향성을 갖고 정체성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부서 차원의 기획력과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민간 의견만으로 신규 콘텐츠를 만들어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실제 담당부서의 사업 추진 동력과 연계 가능한 기존 사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제6기 반영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제6기 지속사업 후보로 반영하되, 기존 사업명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안산 정체성·도시 이미지·문화 브랜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사업명과 사업내용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함. · 안산페스타 등 축제형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지 확인하되, 단순 행사성 사업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안산의 현재적 정체성, 시민참여, 세대별 체감도, 도시 이미지 개선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I-1-7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구분	주요 내용
TF 검토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은 지역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과 직결되므로 정책적 필요성과 제5기 성과는 인정됨. · 다만 사회통합공동체 TF에서는 현행 사회복지종사자 중심 사업을 그대로 제6기까지 확대하기보다는, 제5기에서 일정 부분 일단락된 사업으로 보고 돌봄·복지·교육 등 휴먼서비스 종사자 전반의 사회적 가치와 처우 문제로 후속 과제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분과 보완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분과에서는 본 사업을 제6기에서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특히 처우개선사업이 이미 조례와 위원회,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매년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내 지속 관리 필요성이 인정됨.
현장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지원대상자가 매년 1월 기준 종사자를 중심으로 산정되는 구조와 관련하여, 1월 이후 입사자나 당해 연도 퇴직자에 대한 지원 방식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됨. · 해당 의견은 처우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차년도 본예산 편성 전 반영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리됨.
현장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TF에서는 평생교육사, 돌봄노동자 등 유사 휴먼서비스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기획분과에서는 당장 제6기 사업을 과도하게 확장하기보다는 현행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면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함.

구분	주요 내용
제6기 반영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제6기 지속사업 후보로 반영함. · 다만 단순히 복지포인트나 건강검진비 등 지원 항목의 수를 늘리는 방식보다, 지원대상 기준의 합리화, 신규·퇴직 종사자 지원 여부, 현장 의견수렴 체계, 종사자 만족도, 장기근속, 이직률 등 성과관리 지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리함. · 휴먼서비스 종사자 전반으로의 확대는 장기 검토 과제로 두되, 제6기 기본계획에는 현행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제도 개선 중심으로 반영함.

□ I-3-2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

구분	주요 내용
TF 검토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마을 단위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한 점에서 지속 필요성이 인정됨. ·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구조는 제6기 계획에서도 주민참여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다만 TF에서는 기존 공모사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동 단위 마을계획 중심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분과 보완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분과에서는 TF의 주민자치회 연계 방향에 대해 신중한 의견이 제시됨. · 주민자치회 사업도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일부 주민자치위원 또는 지역 내 영향력이 큰 소수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이에 비해 기존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시민 동아리, 아파트 입주민 모임, 소규모 주민공동체 등 다양한 소수 주민의 의견과 활동을 담아내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현장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와 연계할 경우 행정적 체계성과 동 단위 실행력은 확보될 수 있으나, 일부 구성원 중심의 운영이나 예산·권한의 편중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논의됨. · 또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될 경우 모니터링과 환류가 가능해야 하는데, 주민자치회 실행사업은 보장계획 모니터링 의견이 실제 사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제6기 반영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제6기 지속사업 후보로 반영하되,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실행 지원사업으로 단순 대체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함. · 제6기에서는 기존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장점인 소규모 주민공동체 발굴, 일반 시민 참여, 생활권 기반 공동체 활동을 유지하면서, 우수사업의 연속 지원, 컨설팅, 성과공유, 참여 장벽 완화 등 운영 내실화 방향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함. · 주민자치회 연계는 별도 신규사업 또는 우측 과업 차원에서 참고하되, 제6기 주요 세부사업으로 즉시 전환하기보다는 추가 검토 과제로 둬م.

□ I-3-3 4.16 생명안전공원 시설 조성 및 운영

구분	주요 내용
TF 검토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6 생명안전공원은 세월호 참사의 의미와 생명·안전의 가치를 담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제6기 계획에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TF에서는 총사업비 협의, 계약 및 착공 등 주요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안산시의 공동체 회복과 생명안전 가치 확산을 위한 상징적 공간으로 중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음. · 다만 현재 사업이 시설 조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6기에서는 “생명안전 가치 확산 및 공동체 회복” 중심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분과 보완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분과에서는 본 사업의 제6기 지속 검토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함. · 다만 제6기 계획에 큰 방향성 안에서 다양한 사업을 담을 경우, 실제 모니터링과 성과관리가

구분	주요 내용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공원 준공 이후 전시·추모시설 운영, 시민 의견수렴, 정보 공유, 관련 기관 연계 등 실질적으로 관리 가능한 범위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현장 의견	· 회의에서는 4·16 생명안전공원 관련 논의가 정치적 갈등으로 소비되는 측면이 있으나, 사업 본연의 취지인 생명·안전·존중의 가치와 공동체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또한 시민 대상 인식조사에서 반대 의견보다는 '제대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았음이 공유되었고, 사업 추진 과정과 운영 방향에 대한 정보가 보다 다양한 경로로 공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현장 쟁점	· 기존의 4·16 관련 자원, 예컨대 기억교실, 관련 기관, 시민해설, 교육·추모 프로그램 등을 시민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도 논의됨. · 따라서 생명안전공원이 준공되더라도 기존 자원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 공감과 참여를 형성할 수 있는 운영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세부 프로그램을 과도하게 나열하기보다 제6기 계획에서는 방향성과 관리 가능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제6기 반영 방향	· 본 사업은 제6기 지속사업 후보로 반영 하되, 기존의 "시설 조성" 중심 사업에서 "시설 준공 이후 운영 내실화 및 생명안전 가치 확산" 중심으로 재구성함. · 다만 사업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기보다, ①준공 이후 운영방향 구체화, ②시민 대상 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 ③기억교실·4·16 관련 기관·생명안전교육과의 연계, ④전시·추모시설 운영 성과, ⑤시민 공감도 제고를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이 타당함.

2. 제6기 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논의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제5기 사업을 기계적으로 계승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성과와 한계, 모니터링 환류 가능성, 안산시의 지역 특성, 담당부서의 실행 가능성, 제6기 전략체계와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는 점이 공유됨.
- 사회통합공동체 영역은 특정 대상자 복지사업만을 다루는 영역이 아니라, 지역 정체성, 주민참여, 공동체 회복, 사회적 관계망, 문화적 자원, 민관협력, 종사자 처우 등 지역사회보장 기반을 넓게 다루는 영역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회의자료에서는 제6기 주요 전략 설정안으로 ①인프라, 문화 포함, ②생활안전, 환경 포함, ③복지, 정신건강 포함, ④일자리, 대상별 포커스를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획분과에서는 사회통합공동체 영역이 주로 인프라·문화, 주민참여, 공동체 회복, 사회복지 종사자 지원, 생명안전 가치 확산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을 확인함.

핵심 이슈	주요 내용
지역 정체성 재정의	· 역사 인물 중심의 정체성 사업에서 벗어나 산업도시, 다문화, 바다·생태, 청년문화, 안전도시 등 현재 안산의 복합적 정체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문화사업의 시민 체감도	· 문화사업은 단순 행사나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민이 안산을 자랑스럽게 느끼고 외부에도 긍정적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의 실효성	· 처우개선사업은 지원 항목 확대뿐 아니라 대상 기준, 제도 이용 편의성, 현장 의견수렴, 장기근속 및 이직률 등 효과 관리가 필요함.
주민참여 방식의 균형	· 주민자치회 중심 사업은 행정적 체계성은 있으나, 일반 시민·소규모 공동체·비공식 주민모임의 참여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균형이 필요함.
4·16 생명안전공원의 운영 전환	· 시설 조성 이후에는 생명 안전 가치 확산, 시민 공감, 정보 공유, 관련 자원 연계, 공동체 회복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 방향을 구체화해야 함.

핵심 이슈	주요 내용
담당부서 실행력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민간 의견뿐 아니라 담당 부서의 추진 의지, 예산 반영 가능성, 실적 취합 가능성, 성과지표 설정 가능성이 함께 확인되어야 함.

3. 제6기 신규사업 후보 검토

□ 안산페스타 통합 축제 운영

구분	주요 내용
사업 취지	· 안산의 여러 축제와 문화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브랜드를 형성하는 사업 후보로 검토됨.
분과 의견	· 기획분과에서는 타 지자체의 지역축제 사례와 같이 젊은 세대에게 각인될 수 있는 상징적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안산페스타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안산서머페스타, 김홍도축제, 겨울 빛의 나라 등과 연계될 수 있어, 기존 “문화를 통한 안산 정체성 찾기 프로그램”의 확장 후보로 검토 가능함.
검토 방향	· 제6기 신규 또는 재구성 후보로 검토하되, 단순 축제 나열이 아니라 안산 정체성, 도시 이미지 개선, 시민참여, 세대별 체감도, 문화접근성 확대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안산시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실행 지원사업

구분	주요 내용
사업 취지	· 주민총회 등을 통해 수립된 자치계획을 실행하여 주민참여와 마을 단위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 후보로 검토됨.
분과 의견	· TF에서는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동 단위 마을계획 중심 전환이 제안되었으나, 기획분과에서는 주민자치회 중심 구조가 오히려 일부 주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기존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반 시민, 동아리, 아파트 입주민 모임 등 보다 다양한 소규모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됨.
검토 방향	· 제6기 주요 세부사업으로 즉시 반영하기보다는 후순위 또는 우측 과업 검토 로 정리함. · 주민자치회 연계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되, 기존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시민 참여성과 개방성을 유지하는 방향이 우선 검토되어야 함.

□ 4.16 생명안전공원 시설 준공 및 운영 내실화

구분	주요 내용
사업 취지	· 2027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4·16 생명안전공원을 시설 조성 이후 운영 내실화, 시민 소통, 생명안전 가치 확산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사업 후보로 검토됨.
분과 의견	· 시설 조성 자체보다 준공 이후 운영 방향, 시민 공감대, 정보 제공, 관련 기관·공간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검토 방향	· 제5기 사업의 단순 지속이 아니라 제6기 재구성 사업 후보로 검토 함. · 사업명은 “시설 조성 및 운영”보다 “시설 준공 및 운영 내실화”, “생명안전 가치 확산과 공동체 회복” 등의 방향성을 반영하여 조정 가능함.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특성화 지원(공모사업)

구분	주요 내용
사업 취지	·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통해 개인 역량 강화, 지역사회 통합,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사업 예시로 제시됨.

구분	주요 내용
분과 의견	· 회의에서 심층 논의된 핵심 안건은 아니었으나, 사회통합공동체 영역의 평생학습·참여·포용 관점에서 참고 가능한 사업으로 확인됨.
검토 방향	· 제6기 주요사업 후보로 즉시 반영하기보다는, 장애인복지팀 및 평생학습 관련 부서와의 중복성·연계성 확인 후 후속 검토함.

□ 1인가구·고립가구 관계망 회복 관련 사업

구분	주요 내용
논의 배경	· 1인가구, 고립가구, 중장년 등과 관련한 사업이 제6기 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특정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작한 사업을 향후 권역별로 확대할 수 있는지, 복지관별 여건과 사업비 배분 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논의됨.
분과 의견	· 고립·1인가구 문제는 향후 제6기 계획에서 중요한 의제로 부상할 수 있으나, 특정 기관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할 경우 공간·인력·재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검토 방향	· 기획분과 단독 사업으로 확정하기보다 생활안정지원팀, 통합사례관리분과, 복지관 권역별 사업과 연계하여 후속 검토함.

4. 종합 합의 사항

구분	사업명	분과회의 정리	제6기 반영 방향
제5기 사업	1-1-1 문화를 통한 안산 정체성 찾기 프로그램	안산에 대한 이해와 애착 형성에 기여한 사업으로 지속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역사 인물 중심에서 벗어나 다문화, 바다, 환경, 안전, 청년문화 등 현재적 안산 정체성을 반영해야 함.	지속/재구성. 안산 정체성·도시 이미지·문화브랜딩을 포괄하는 사업으로 재설계. 안산페스타 등 축제형 사업과 연계 가능성 검토.
제5기 사업	1-1-7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조례, 위원회, 종합계획,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등 제도 기반이 구축된 사업으로 지속 필요성이 있음. 1월 기준 대상자 산정, 신규 입사자·퇴직자 지원 등 운영상 개선 의견이 제시됨.	지속. 현행 사업을 유지하되 대상 기준, 현장 의견수렴, 성과지표를 보완. 휴먼서비스 종사자 확대는 장기 검토.
제5기 사업	1-3-2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	주민참여와 공동체 활성화 측면의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TF의 주민자치회 연계 방향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 중심 운영, 일반 시민 참여 축소 우려가 제기됨.	지속/내실화. 기존 소규모 주민공동체 발굴과 공모사업의 개방성을 유지하되, 우수사업 연속지원, 컨설팅, 성과공유 등 보완.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사업으로 단순 대체는 신중 검토.
제5기 사업	1-3-3 4·16 생명안전 공원 시설 조성 및 운영	제6기에서도 지속 검토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시설 조성 중심에서 준공 이후 운영 내실화, 시민 공감, 정보공유, 생명안전 가치 확산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지속/재구성. “시설 준공 및 운영 내실화” 또는 “생명안전 가치 확산과 공동체 회복” 방향으로 사업 구조 재정의.

구분	사업명	분과회의 정리	제6기 반영 방향
신규 후보	안산페스타 통합축제 운영	문화브랜딩과 도시 이미지 개선 측면에서 검토 가능함.	검토 후보. 안산 정체성 사업과 연계하되 단순 축제 나열이 되지 않도록 시민참여와 도시 이미지 개선 중심으로 검토.
신규 후보	안산시 주민자치회 자치 계획 실행 지원사업	주민자치회 기반의 동 단위 사업으로 검토 가능하나, 기획분과에서는 일부 주민 중심 운영과 모니터링 환류 한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후순위 검토. 기존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대체사업으로 즉시 반영하기보다는 별도 과업 또는 참고 후보로 관리.
신규 후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특성화 지원	포용적 학습과 사회참여 측면에서 의미는 있으나, 기획분과 핵심 안건으로 심층 논의되지는 않음.	후속 검토. 장애인복지팀 및 평생학습 관련 부서와 연계 여부 확인.
기타 의견	1인가구·고립가구 관계망 회복 관련 사업	향후 제6기 계획에서 중요한 의제로 검토 가능하나, 특정 기관 중심의 급격한 확대에는 부담이 있음.	타 영역 연계 검토. 생활안정지원팀·통합사례관리분과 와 연계하여 후속 검토.

5. 향후 계획

- 본 기획분과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은 제2차 사회통합공동체팀 TF 회의에 공유하여, 제6기 지속·신규 사업 후보군 확정 및 사업별 추진 방향·성과지표 검토에 반영함.

차기회의

- ◎ 일시: 26.7.3.(금) 16:00
- ◎ 장소: 안산시청 제3별관 대회의실
- ◎ 안건: 제6기 지속·신규 사업 후보군 확정, 사업별 추진 방향 및 성과지표안 논의 등

진행사진

